(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343-389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343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새한글성경』의 담화론적 특성 연구

—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

박덕유*

1. 서론

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한글성경』(2024)이 발간되었다. 『새한글』의 번역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현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실제 언어 감각을 반영하여 담화론적 특성을 보여 준다. 담화(談話)는 '이야기'로, 둘 이상의 발화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이다. 담화는 여러 개의 발화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지지만, 발화가 이어졌다고 하여 담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화의 연속체가 담화로 되려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한글』은 현대 한국어의 담화 방식과 문법 감각을 적극 반영한 번역으로 짧은 문장과 자연스러운 연결어 및 지시어 사용,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는 구어체적 화계 방식을 보여 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장면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담화론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새한글』이 기존 번역본인 『개역개정』 및 『새번역』과 비교할 때 담화 차원에서 어떤 언어·의사소통적 특성을 지니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는 일종의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으로 문장이나 단락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 단위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 장면의 요소를

* 인하대학교에서 국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deokyu@inha.ac.kr.

반영한 담화 단위에서의 분석이다. 우선 담화의 내용 구조로 제대로 짜인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주제 아래 발화들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즉 뒷받침 발화나 문장이 화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담화가 되려면,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 면에서 발화의 내용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긴밀한 언어 형식의 담화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담화나 단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내용적 요소들이 빈틈없이 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발화나 단락의 중심을 이루는 화제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담화 장치로서의 소제목, 호칭의 담화론적 특성, 담화의 결속 장치, 높임법의 화계 등 담화 분석을 통해 주요 특성을 살필 것이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룬 내용이므로 발화 역시 대부분 예수님과 관련된 장면으로 이루어져 사건 중심의 연속 담화의 특성이 크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예수님 외에 화자와 청자가 등장하는 발화도 있어 이 부분도 함께 다루어『새한글』의 담화론적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2. 외적 담화 장치로서의 소제목

이야기의 소제목은 담화나 텍스트의 구간을 나누고 읽기 전에 이야기의 흐름을 예측하게 해 줌으로써 독자의 가독성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이에 소제목만 보더라도 그 담화의 서사적 구조와 장면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소제목은 독서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담화의 외적 구조 장치이다. 소제목은, 중심 사건 요약, 담화의 장면 설정이나 전환 경계 표지, 그리고 독자의 이해와 해석 방향의 선점 기능을 갖는다. 사복음서는 각 장마다 대체로 5~7개 정도의 소제목이 있다.『새한글』의 경우 소제목이 요한복음 14장은 2개, 마태복음 23장, 25장은 3개로 적은 반면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4장은 10개의 소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은 13개로 구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5:3-32는 “세 가지 비유로 대답하시다”의 중제목 속에 3개의 소제목이 있다. 소제목 3가지는 “잃은 양을 찾아내어 기뻐하는 사람”(3-7절),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기뻐하는 여자”(8-10절),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11-32절) 등이다. 이에『새한글』의 사복음서에 제시된 소제목을『개역개정』 및『새번역』과 대비해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새한글』의 소제목은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져 가독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1-17, 누가복음 3:23-38의 소제목을 보면『개역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의 족보”,『새번역』은 “예수의 계보”, “예수의 계보”인 반면에『새한글』은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뿌리”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해당 담화를 이해하는 효율성을 높여 준다.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4:18-22
『개역개정』 어부들을 부르시다
『새번역』 어부들을 부르시다
『새한글』 어부 네 명을 제자로 부르시다

마태복음 14:13-21; 누가복음 9:10-17; 요한복음 6:1-14
『개역개정』 오천 명을 먹이시다
『새번역』 오천 명을 먹이시다
『새한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베푸시다

마태복음 15:32-39; 마가복음 8:1-10
『개역개정』 사천 명을 먹이시다
『새번역』 사천 명을 먹이시다
『새한글』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로도 기적을 베푸시다

마태복음 5:27-30
『개역개정』 간음하지 말라
『새번역』 음욕과 간음
『새한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

누가복음 6:6-11
『개역개정』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새번역』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새한글』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 주시다

둘째, 구의 형식이 아니라 문장 형식으로 나타나 서사적 담화를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마태복음 1:18-25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개)[1] – “예수의 탄생”(번) –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다”(한), 마태복음 5:17-20의

1) 이하『개역개정』은 ‘개’,『새번역』은 ‘번’, 그리고『새한글』은 ‘한’으로 표기한다.

“예수와 율법”(개) – “율법에 대한 교훈”(번) –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한), 마가복음 5:21-43의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개) –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자”(번) – “출혈병에 시달려 온 여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한), 마태복음 7:13-14의 “좁은 문”(개) – “좁은 문”(번)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한), 누가복음 20:20-26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개) – “세금에 대한 질문”(번) –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세금을 두고 실랑이하다”(한) 등이다. 요한복음 3:1-21에서는 “예수와 니고데모”(개) – “예수와 니고데모”(번)인 반면『새한글』은 “다시 태어남에 대해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누시다”(1-12),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13-21)로 나누었다. 이처럼『새한글』의 소제목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을 소제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 담화 내용의 가독성을 높인다.

이외에 사복음서에 제시된 문장형 소제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12:22-32; 마가복음 3:20-30
『개역개정』 예수와 바알세불
『새번역』 예수와 바알세불
『새한글』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하시다

마태복음 9:18-26
『개역개정』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새번역』 어느 지도자의 딸과 혈루증에 걸린 여자
『새한글』 출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를 고쳐 주시고, 관리의 딸을 살려 주시다

마태복음 16:5-12
『개역개정』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새번역』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
『새한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7:24-30
『개역개정』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새번역』 시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새한글』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시다

요한복음 16:5-15
『개역개정』 성령의 일

『새번역』 성령의 일
『새한글』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다

셋째, 소제목을 더 세분해 담화 장면의 이해와 담화 분석 능력을 높인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3:1-12의 경우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하나의 담화로 보아 소제목을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개) – "세례자 요한의 전도"(번)로 하였지만 『새한글』은 이것을 3개의 담화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다"(1-6),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7-10), "더 힘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11-12)로 세분하였다. 지면 제한으로 마태복음의 소제목 세분한 것만을 보인다.

<표 1> 마태복음의 세분한 소제목 비교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마 3:1-12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	세례자 요한의 전도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다(1-6)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7-10)
			더 힘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11-12)
마 7:1-6	비판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판가름하지 말라(1-5)
			지혜롭게 판가름하라(6)
마 7:7-12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달라고 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11)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 (12)
마 11:25-30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시다 (25-27),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28-30)
마 14:22-33	물 위로 걸으시다	물 위로 걸으시다	물 위로 걸으시다 (22-27)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시다 (28-33)
마 15:1-20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전통을 잘못 지키는 것을 문제 삼으시다 (1-9)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지 말씀하시다 (10-20)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마 16:21-28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고난, 죽음, 부활을 미리 알려 주시다 (21-23)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 (24-28)
마 18:15-20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형제자매의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 (15-18)
			함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 (19-20)
마 18:21-35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용서에 대한 말씀 (21-22)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23-35)
마 19:16-30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젊은이	한 젊은이에게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가르치시다 (16-26)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27-30)
마 23:1-36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을 꾸짖으시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조심하라 (1-12)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끝장이라고 하시다 (13-36)
마 24:3-14	재난의 징조	재난의 시작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 (3-8)
			끝까지 견뎌 내라 (9-14)

넷째, 능동적이거나 주체적인 표현 등이 있다. 마태복음 4:1-11의 경우 “시험을 받으시다”(개) –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번)인 반면에『새한글』은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시다”로 시험을 받는 피동적인 표현보다는 시험을 물리치신다는 능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유혹받으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목을 통해 보여 주었다. 또한 요한복음 11:38-44의 “나사로가 살아나다”(번) – “나사로를 살려 내시다”(한)로 나사로를 살려 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체적 표현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25-33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개) – “내가 세상을 이겼다”(번) –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다”(한)의 경우 단순히 세상을 이겼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선언적 말씀이 있음을 보였다. 이외에 어휘적 문제도 있다. 마태복음 27:11-14; 마가복음 15:1-5; 누가복음 23:1-5의 경우 『새번역』은 모두 "빌라도에게/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다"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새한글』은 "빌라도에게 심문받으시다"로 기술되었다. '신문(訊問)'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이다. 반면에 '심문(審問)'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이므로 본 담화의 장면에 적합한 어휘라 볼 수 있다.

3. 담화의 문법 특성

담화의 문법 특성으로 박덕유는 화자, 청자, 그리고 장면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가 결정된다고 했다.[2] 따라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담화 지표의 호칭, 독해 편리를 위한 결속 장치로서의 지시어와 긴 문장이나 발화의 분절을 위한 담화 표지의 연결어 사용, 정보 구조의 변화로 강조 정보와 새 정보를 위한 어순 도치, 그리고 현장성과 생동감을 주어 흥미를 유발하는 역사적 현재 시제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3.1. 호칭의 담화론적 특성

3.1.1.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청자를 부를 때에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높임의 경우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을 붙인다. 이는 자연적으로 높임의 종결 어미 '해요체'와 '하십시오체' 등과 호응하게 된다.

마태복음 26:33

『개역개정』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새번역』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새한글』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남들은

2) 박덕유, 『이해하기 쉬운 문법교육론』 (서울: 역락, 2017), 275-280.

다 **선생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가복음 14:31

『개역개정』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새번역』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새한글』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씀드렸다.

누가복음 22:33

『개역개정』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새번역』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37

『개역개정』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새번역』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새한글』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무엇 때문에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위의 대화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인데, 4개 복음서에 모두 동일한

상황의 담화 구조를 보인다. 사복음서 모두 『개역개정』은 '주, 주여 + 나는 + 하십시오체', 『새번역』은 '주님, 선생님 + 나는 + 하십시오체'인 반면에 『새한글』은 '선생님, 주님 + 저는 + 하십시오체'이다. 호칭할 때 '-님'을 붙이면 종결형 어미 역시 높임인 '하십시오체'가 적당하다. 그리고 아울러 발화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랍비님', 누가복음에서는 '스승님'의 호칭이 새로 등장한다.

마가복음 9:5

『개역개정』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
『새번역』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새한글』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복음 9:33

『개역개정』	…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
『새번역』	…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새한글』	…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다'의 담화 장면에서의 베드로는 "랍비님"의 호칭을 사용한다.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담은 '나의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서의 담화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스승님"의 호칭은 『새한글』 누가복음에서만 보인다. 이두희는 '스승님'은 원문 특수 용법 반영으로 보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ἐπιστάτα(스승님)라고 하는 것에 반해, 호의적이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διδάσκαλε(선생님)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고서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3] 따라서 "스승님" 호칭은 권위를 가진 주관자, 지도자로,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의 의미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

3)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 『『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5), 139.

의 역할을 담고 있다.

이에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

복음서	소제목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마태복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다(17:4)	주여	선생님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라고 하시다 (26:33)	주	주님	선생님
마가복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다 (9:5)	랍비여	랍비님	랍비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라고 하시다 (14:31)	주	선생님	선생님
누가복음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다 (9:33)	주여	선생님	스승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시다 (22:33)	주	주님	주님
요한복음	열둘은 예수님 곁에 남다 (6:68)	주여	주님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라고 하시다 (13:37)	주여	주님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복음서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은 “주여”(개) – “주님”(번) – “주님”(한), 마가복음은 모두 “선생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주여”(개) – “선생님”(번) – “스승님”(한)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동일한 대화의 장면은 아니지만 “랍비여”(개) – “선생님”(번) – “랍비님”(한)으로 예수님을 부른다.

마태복음 8:25
『개역개정』 …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새번역』 …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새한글』 … **“주님,** 구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4:38
『개역개정』 …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새번역』 …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새한글』 …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친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누가복음 8:24

『개역개정』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

『새번역』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

『새한글』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다. "**스승님, 스승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

요한복음 11:8

『개역개정』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새번역』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새한글』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드린다. "**랍비님**, 조금 전에도 유대아 사람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로 가시려는 겁니까?"

다음으로 병자 및 백명대장 등 제자들 이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난다. '주여/주님', '선생님/스승님', '예수님', '랍비여/랍비님/랍부니'의 호칭이 보인다.

<표 3> 제자들 이외 예수님에 대한 호칭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시각장애인	막 10:51	선생님이여	선생님	랍부니
	눅 18:41	주여	주님	주님
더러운 영이 붙은 아이 부모 (막 9:17; 눅 9:38)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38년 된 병자 (요 5:7)		주여	주님	선생님
심한피부병 환자들 (눅 17:13)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	예수님, 스승님
회당 지도자 집에서 온 사람 (막 5:35; 눅 8:49)		선생님	선생님	저 선생님
가나안 여자 (마 15:25)		주여	주님	주님
결혼관계 깨뜨린 여자 (요 8:11)		주여	주님	주님
백명대장 (마 8:6)		주여	주님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요 6:25)		랍비여	선생님	랍비님
나다나엘 (요 1:49)		랍비여	선생님	랍비님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니고데모 (요 3:2)	랍비여	랍비님	랍비님
삭개오 (눅 19:8)	주여	주님	주님
마리아 (요 20:16)	랍오니	라부니	랍부니

마가복음 10:51

『개역개정』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새번역』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새한글』 이에 응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나요?"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부니**,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주여", 또는 "주님"으로 호칭한 반면에 마가복음은 "선생님이여"(개) – "선생님"(번) – "랍부니"(한)로 호칭하였다. 그리고 인칭대명사는 "네게"(개) – "너에게"(번) – "그대에게"(한)로, 어휘적으로는 "맹인이"(개) – "그 눈 먼 사람이"(번) – "그 시각장애인"(한)으로 기술하였다. 『새한글』에서 "랍부니"로 번역한 이유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이 군중 속에서 외친 이 호칭은 공적 직함이 아니라 바르디매오의 개인적 신뢰의 담화 용어이다. 랍비가 일반적인 존칭 표현인 '나의 선생님'이라면, 랍부니는 '나의 존귀한 선생님'으로 더 깊은 존경과 헌신의 애정이 담긴 원문을 드러낸 표현이다. 즉 바르디매오는 시각장애인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배제된 위치적 존재로 개인적 감격의 감정적 강조가 들어있는 인격적 고백의 호칭으로 볼 수 있다.[4)]

다음의 담화는 38년 동안 앓아 온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 주시는 장면이다.

4) "랍부니"는 '나의 선생님'을 뜻하는 아람어로 '랍비'와 유사하지만 좀 더 개인의 경외적 감정이 담긴 표현이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랍부니"(요 20:16)라고 부른 호칭 역시 개인적 존경의 감정이 담긴 표현이다.

요한복음 5:7

『개역개정』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새번역』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한글』 예수님께 아픈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던져 넣어 줄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8:5-6

『개역개정』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새번역』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백명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사정사정했다. 그가 말했다. "**주님**, 제가 부리는 아이가 마비증이 있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끔찍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의 대화 장면에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38년 병자와 백부장은 "주여", "주님"의 동일한 호칭을 보인다. 그러나 『새한글』에서 38년 병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으로, 백명대장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주님"으로 번역하였다. 38년 병자는 예수님을 치유자로도 스승으로도 메시아로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병에서 낫고 싶으냐고 물어도 38년 동안 못만 바라보는 고정된 시야로 엉뚱한 대답만 한다. 그에게는 인간 관계성의 스승도 신앙적 고백의 주님도 없다. 반면에 당시 유대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장교인 백명대장은 예수님이 능히 고쳐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부리는 아이'라는 표현으로 그가 겸손하면서도 인격적인 상관임을 보여 준다. 그의 고백은 신뢰와 믿음의 '주님'이다. 그리고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주여, 주님 + 나를 : 내 하인이, 내 종을 + 하십시오체'로, 『새한글』은 '주님, 주님 + 저를 : 제가 부리는 아이 + 하십시오체'로 '나'가 아닌 '제'로 자기를 낮추어 상대를 높이고 있다.

3.1.2.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부르는 호칭

예수님이 하나님 및 다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정리해 보이고자 한다.

<표 4>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부르는 호칭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하나님(막 14:36)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	압바[5]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요 2:4)		여자여	여자여	어머니
가나안 여자(마 15:28)		여자여	여자여	오, 자매님
결혼 관계를 깨뜨린 여자(요 8:10)		여자여	여자여	자매님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려 온 여자 (마 9:22, 막 5:34, 눅 8:48)		딸아	딸아	따님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	막 2:5	작은 자야	이 사람아	아드님
	마 9:2	작은 자야	아이야	아드님
	눅 5:20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친구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간절한 호칭으로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아빠 아버지"로, 『새한글』에서는 "압바, 아버지"로 부르신다. '아빠'라는 말은 어린애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으로 『새한글』에서는 아람어 '압바'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당시 절박하고도 간절한 상황의 담화 호칭어임을 나타냈다.

마가복음 14:36

『개역개정』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

『새번역』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

『새한글』 또 기도하셨다. "**압바 아버지**, 무엇이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 주십시오. …"[6]

다음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일반인 여인을 지칭하신 호칭이다.

---

5)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의 그리스어 음역임.

6) 마 26:39, 눅 22:42에서는 동일한 발화 장면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다.

(가) 요한복음 2:4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
『새번역』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새한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

(나) 요한복음 8:10

『개역개정』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
『새번역』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
『새한글』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매님**, 그들이 어디에 있나요? …"

(다) 마태복음 15:28

『개역개정』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새번역』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새한글』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딸이 나았다.

(가)는 갈릴래아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와의 대화 장면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여자여"로, 『새한글』에서는 "어머니"로 호칭하고 있다. 종결 어미 '있나이까('하십시오'의 예스러운 표현) : 있습니까(하십시오체)'와 호응하며, 예수님은 "저한테"로 낮춤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여'를 γυνή의 호격인 γύναι로 사용함으로써 정중하고 품위 있는 높임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현대인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원문의 특성을 살린 "어머니"의 호칭은 담화 해석의 가독성을 높인다.

(나)의 경우는 결혼 관계를 깨뜨린 여자와의 대화이고, (다)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장면의 담화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 모두 "여자여"로, 『새한글』에서는 "자매님"으로 호칭하신다. '여자'는 경계를 갖지 않는 보편화된 언어이지만, '자매'는 혈연 중심의 가족 단위에서 사용하는 호칭이다. 예수님의 대화 장면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이방인이나 죄인으로서의 여성들이다. (나), (다)의 두 장면 모두 죄인으로서의 여성으로, 이들에게 "자매님"으로 호칭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의 언어로 볼 수 있다.[7]

다음은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 주신 장면의 담화이다.

마가복음 2:5
『개역개정』 …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새번역』 …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새한글』 …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마태복음 9:2
『개역개정』 …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새번역』 …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새한글』 … "힘내세요,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누가복음 5:20
『개역개정』 …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새번역』 …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새한글』 … "**친구**,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작은 자야", "이 사람아", "아이야" 등으로 부른 반면에 『새한글』에서는 "아드님", "친구" 등 친밀한 호칭을 사용하신다. 예수님의 호칭은 전통적인 틀에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재배치한다. 병자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죄인 취급을 당하며 아름조차 불리지 않은 사람에게 "아드님", "친구"라고 부르신다. 이는 문법적으로 일종의 간접 높임으로 볼 수 있지만 더 이상 소외되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며 친구임을 선언하신 것이다.[8]

7)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거든요."(막 3:35)
8) 마 9:22; 막 5:34; 눅 8:48에서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려 온 여자를 고쳐 주신 장면의 "따님"도 마찬가지 담화 효과를 갖는다. "…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

3.2. 담화의 결속 장치

담화는 여러 개의 발화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데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에는 화자와 청자 이외에 화자와 청자 간의 주고받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이들이 존재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이를 담화의 장면이라고 한다. 이야기 장면의 상황은 다양한 현실 세계를 장면으로 하여 성립되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한 공간에서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담화가 성립되려면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의 내용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언어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9] 발화 내용의 담화 표지로 '이, 그, 저'와 같은 지시어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 긴 문장이나 발화의 내용을 분절했을 때는 '그리고, 그런데, 그러므로'와 같은 연결사를 사용하여 발화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어야 한다. 이외에 담화 정보 구조의 재배치나 담화 전략으로서의 역사적 현재도 담화의 결속 장치를 견고하게 한다.

3.2.1. 담화의 분절 및 연결 표지 사용

『새한글』은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다음 세대에 익숙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화의 맥락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긴 문장이나 담화를 분절하여 지시어나 접속어 등 담화 표지를 적절히 사용하였다.

(가) 요한복음 1:39

『개역개정』 …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

『새번역』 …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

『새한글』 … 그래서 그들이 갔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10] 내내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다. …

(나) 마태복음 13:22

『개역개정』 …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9) 박덕유, 『문장론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2), 178-186.

10) 띄어쓰기는 현행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에 맞게 '그날'로 해야 한다.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마 9:14),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마 16:21), '그 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막 4:35), '다음 날 예수께서 … 그 때에 빌립을 만나서'(요 1:43) 등 『새번역』에서는 띄어 썼던 지시어를 『새한글』에서는 '그때', '그날', '다음날'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모두 붙여쓰기로 하였다.

『새번역』 …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새한글』 … 그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이 그 말씀의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마태복음 8:15
『개역개정』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새번역』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새한글』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으킴을 받아 예수님을 섬겼다.

앞의 예문 (가)의 경우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모두 하나의 문장으로 된 것을 『새한글』에서는 2개의 문장으로 분절하고 "그래서", "그리고"라는 접속어를 사용했다. 또한 지시적 명사는 "그 날"에서 "그날"로 붙여 쓰고, 지시적 높임법은 "그의 별" → "그분의 별", "그에게" → "그분께"로 해야 종결어미 '-ㅂ니다, -ㅂ니까'와 호응된다. (나)에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모두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새한글』에서는 '단문+그렇지만+단문+그래서+단문'으로, (다)에서는 '그래서+단문+그러자+단문' 형식으로 앞뒤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하였다. 물론 지나치게 세분할 경우에는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다.[11]

(가) 누가복음 6:48
『개역개정』 …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새번역』 …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11)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 드리세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요."(마 8:4)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제대로 밥 먹을 틈도 없을 정도였다.(막 3:20)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래아로 떠나가고자 하셨다. 그때 필립을 찾아가신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요 1:43)

『새한글』 … 그런데 물난리가 나서,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복음 2:10

『개역개정』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새번역』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하였다.

『새한글』 그러고는 신랑에게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맨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못한 것을 내놓지요. 그런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간직해 두었군요!"

(다) 마태복음 7:6

『개역개정』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

『새번역』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

『새한글』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도 마세요. 그리하여 돼지들이 발로 그것들을 마구 밟지 못하도록 하세요. …"

(라) 마가복음 2:14

『개역개정』 …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새번역』 …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새한글』 …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나섰다.

위의 대화문을 보면『새한글』은, (가)의 “그런데”, “그러나”, (나)의 “그러고는”, “그리고”, “그런데”” (다)의 “그리하여” 등으로 연결하여 담화의 결속성을 강화시켰다. 이들 접속 어구의 사용은 앞뒤 발화나 문장의 관계를 밝히고 뒤의 발화나 문장이 나아갈 방향을 예고한다. 또한 (가)에서 지시어 “그 집”을 사용하고, (다)에서는 “그들이” → “돼지들이”로 하여 “개”와의 혼동을 방지하여 명료하게 하였다. (라)의 경우에는 앞의 정보 ‘레위’가 있으므로 동일한 명사 지칭 대신 3인칭 “그”로 기술하였다.

3.2.2. 담화의 정보 초점화

담화의 정보 초점화란 정보 구조의 재배치로 새 정보와 강조 정보를 문두에 두는 형식으로 어순 도치로 이루어진다. 즉 초점이 앞서는 구조나 화자의 의도, 판단, 감정 등을 화제보다 담화 전면에 배치한다. 또한 비교·대조되는 문장 성분을 문두에 두거나 보다 선명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 독립어를 사용한다.

(가) 마가복음 1:1

『개역개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번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새한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나) 마태복음 1:20

『개역개정』	…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
『새번역』	…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 들여라. …
『새한글』	… “요셉, 다윗의 아드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

(다) 마가복음 1:8

『개역개정』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새번역』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새한글』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 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가)에서 『새한글』은 기존 번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으로 어순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두희는 이에 대해 저자의 강조점이나 의도를 반영한 그리스어 원문의 어순을 따랐으며, 인칭대명사의 강조용법을 의식한 번역이라고 했다.[12] (나)에서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를 『새한글』에서 “요셉, 다윗의 아드님”으로 ‘요셉’을 강조하고자 문두에 두었다. (다)에서는 비교하는 형식으로 인칭대명사 “나는,”과 “그분은,”을 강조하고자 쉼표의 독립어를 사용했다.

아래 담화에서는 어순 도치를 사용하고, “물러가거라,”, “그분은,”,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처럼 독립어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원문의 강조를 위한 번역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13] 그러나 원문의 어순을 따를 경우 의미를 이해할 때 어려운 경우도 있다.[14]

(가) 마태복음 4:10

『개역개정』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
『새번역』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
『새한글』	그때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

(나) 마태복음 3:11

『개역개정』	…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새번역』	…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새한글』	…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어 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12)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241-242.

13) 『새한글』 번역 특징 중 “5. 원문에서 어순 변형 등을 통해 문장의 일부를 강조한 경우에는 번역에서도 이를 최대한 드러내도록 한다.” “머리말”, 『새한글성경』(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14) …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 보기에는!’(마 21:42)
복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따돌릴 때, 비방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요! 인자 때문에 말입니다!(눅 6:22)

(다) 누가복음 19:8

『개역개정』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새번역』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새한글』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3.2.3. 담화 전략으로서의 역사적 현재

담화에서 말하는 역사적 현재(historical present)는 과거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함으로써 담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역사적 현재는 과거를 현재로 바꾸는 문법 현상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현재화하여 청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담화 전략이다. 당시 상황적 묘사를 현장감과 생동감 있게 하며, 화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 서술하는 화자 관점의 현재화 방식으로 아래 담화의 예문처럼 주로 마가복음에 나타난다.[15]

마가복음 1:12

『개역개정』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새번역』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새한글』	곧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다.

마가복음 2:3

『개역개정』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새번역』	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새한글』	그때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

15) 이두희는 이러한 역사적 현재 기능은 전개되는 이야기에 독자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마가는 역사적 현재 시제를 적극 활용하였다고 했다.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239.

님께로 데리고 온다.

마가복음 2:14

『개역개정』 …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

『새번역』 …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

『새한글』 …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

마가복음 4:35

『개역개정』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새번역』 그 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새한글』 바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건너편으로 갑시다.”

이러한 역사적 현재 시제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등 역사적 현재를 활용함으로써 당시 상황적 묘사를 현장감과 생동감 있게 보여 준다,

요한복음 1:48

『개역개정』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

『새번역』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

『새한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

요한복음 2:4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

『새번역』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새한글』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

요한복음 5:8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새번역』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새한글』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요한복음 13:37-38

『개역개정』	37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새번역』	37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새한글』	37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무엇 때문에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38 예수님이 답변하신다. …

마태복음에서도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사용하였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모두 과거 시제를 사용했지만 『새한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린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등 당시 상황을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새한글』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8:26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매우 고요해졌다.

마태복음 9:14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린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35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씀드렸다.

4. 담화 높임법의 화계 분석

국어 높임법은 주로 화자와 청자, 그리고 주체나 객체에 해당하는 제삼자에 의해 성립된다. 따라서 우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문법 규칙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이나 계급, 직장 서열 등 사회적 지위에 따른 수직적 관계에서는 보다 엄격한 격식체(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가 요구되지만, 개개인의 친분 정도에 따른 정감의 표현일 경우에는 비격식체(해요체, 해체)를 사용한다. 그러나 단순히 문법적인 요소에 의해 정형화되기보다는 주체와 객체 등 제삼자가 화자와 청자와 어떤 관계에 있거나, 제삼자가 대화 장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주변 상황 등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그리고 화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른 화자의 심적 태도나 의도 등 담화론이나 화용론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문법 체계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16] 국어의 화계는 높임법의 일종인 상대높임법에 나타나는 등급(scale of politeness)의 표현이다. 성기철은 화계는 등분이란 말로 쓰여 오다가 근래에 화계가 일반화되어 가는 경향이라고 하면서 문장의 종결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표현되며 청자에 대한 화자의 대우 등급이라 했다.[17] 그러므로 상대를 고려한 높임법의 화계는 담화에서 매우 중요하다.

민현식은『개역개정』에서는 서사문이나 대화문이나 모두 고전체의 ‘하소서체’와 ‘하라체’ 두 가지만 구사하였지만,『새번역』에서는 ‘하십시오체’와 ‘해라체’를 기본으로 도입하되 ‘해요체’의 전면 도입은 하지 않고 극히 일부에서 도입했다고 하였다.[18] 그리고『새한글』에서는 대화자 쌍방의 나이, 신분 관계에 따른 높임법의 변화를 반영하여, ‘하십시오체’, ‘해라체’는 물론 ‘하오체’, ‘하게체’, ‘해요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복합(=가변, 변동) 화계를 구사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룬 내용이므로 복음서에 나오는 발화 역시 대부분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다.

16)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성경원문연구」34 (2014), 85.
17) 성기철,『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서울: 글누림, 2007), 123-131.
18)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새한글성경』간추린 번역 해설집』, 205.

그러나 부분적으로 예수님 외에 화자와 청자가 등장하는 발화도 있어 이 부분도 다루고자 한다. 이에 예수님과 관련된 화계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화계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4.1. 예수님과 관련된 화계 유형

먼저 예수님과 관련된 발화 유형은 크게 '예수님-제자들', '예수님-병자들', '예수님-무리(사람들)', '예수님-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외에 특별한 경우로 '예수님-대제사장', '예수님-빌라도'와의 발화가 있다. 이에 대한 화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사복음서에 나타난 화계 유형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예수님 ⇄ 세례자 요한	하라 ⇄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십시오	해요 ⇄ 하십시오
예수님 ⇄ 요한의 제자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하십시오 ⇄ 하십시오 해요 ⇄ 해요
예수님 ⇄ 제자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하오 ⇄ 하십시오
예수님 → 베드로	해라(하라)	해라	해요 해요+하십시오[19]
예수님 → 필립	하라	해라	해요
예수님 → 마태	하라	해라	해요
예수님 → 야고보, 요한	해라	해라	해요
예수님 ⇄ 나다나엘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십시오
예수님 ⇄ 어머니 마리아	하십시오 ⇄ 해라	하십시오 ⇄ 해라	해요 + 하십시오 ⇄ 해라
예수님 ⇄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해라 ⇄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십시오
예수님 ⇄ 무리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하십시오 해요 + 하십시오 ⇄ 하십시오

19) …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는 게바라 불릴 겁니다." …(요 1:42); …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바로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세 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예수님 ⇄ 병자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 하십시오
예수님 ⇄ 종교 지도자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예수님 → 시중꾼들	하라	해라	해요
예수님 ⇄ 니고데모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십시오
예수님 ⇄ 회당 지도자(회당장)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 하십시오+해요
예수님 ⇄ 유대아인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오	해요+하십시오 ⇄ 해요+하십시오 하오 ⇄ 해요
예수님 ⇄ 형제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해요
예수님 →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	하라(해라)	해라	하오
예수님 → 가룟 유다	하라	해라	해요 해요+하십시오[20]
예수님 → 무리(적대적 관계)	해라	해라	하오[21]
예수님 → 여자들	하라	해라	해요
예수님 ⇄ 마르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 해요[22]
예수님 ⇄ 백명대장	하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십시오
예수님 ⇄ 사마리아 여인	하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 해요
예수님 ← 병사들	← 하라	← 해라	← 해
예수님 ← 죄수1	← 하라	← 해라	← 하오
예수님 ⇄ 죄수2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해요+하십시오
예수님 ⇄ 대제사장	해라 ⇄ 해라	하오 ⇄ 하오	하오 ⇄ 하오
예수님 ⇄ 빌라도	해라 ⇄ 해라	하오 ⇄ 하오	하오 ⇄ 하오
예수님 → 하나님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마 26:34)처럼 '그대+하십시오' 형식을 취한다. '그대'는 '하게'나 '하오' 자리에 쓴다.

20) … "그 여자를 그냥 <u>놔두세요</u>! 내 장례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해 <u>둔 것입니다</u>.(요 12:7)

21) …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러 <u>나온 것이오</u>?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u>가르치고 있었소</u>.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u>붙잡지 않았소</u>.(마 26:55);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누구를 <u>찾고 있소</u>?" …(요 18:7)

22) …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두는데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u>않으신가요</u>? 그러니까 저를 좀 거들라고 마리아에게 <u>말씀해 주세요</u>!"(눅 10:40); …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u>있군요</u>.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눅 10:42)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예수님 ⇄ 마귀	해라 ⇄ 하라	해라 ⇄ 해라	해라 ⇄ 하오
예수님 ⇄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	하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병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한두 사람에서부터 많은 사람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주낮춤말인 '하라체' 및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 아주높임말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한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에 초점을 두었기에 보다 엄격한 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새한글』에서는 지위, 신분, 환경, 나이 등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요체'나 '하십시오체' 등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단 마귀나 귀신에게만 한정하여 '해라체'를 사용하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 위치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관리하던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개역개정』에서 '하라(해라)체', 『새번역』과 『새한글』에서는 예사높임인 '하오체'를 사용했다. 『개역개정』은 화계 변화가 거의 없고 예수님 신성에 고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번역』역시 획일적이거나 일부 변화된 화계를 반영하였다. 이에 반해 『새한글』은 담화 상황에 따른 화계 전략적 선택으로 대화의 장면과 상황, 화자의 심리적 태도, 사회문화적 활동과 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거나 복합적인 화계를 사용하였다.

4.1.1. 예수님과 제자들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이다. 개별적으로는 베드로, 필립, 마태, 야고보와 요한, 가룟 유다 등이다.

(가) 마가복음 4:40

『개역개정』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새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새한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나) 누가복음 12:4

『개역개정』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새번역』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새한글』 "내 친구인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이지만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마태복음 10:17
『개역개정』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새번역』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새한글』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그대들을 지방의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여러 회당에서 그대들을 채찍질할 겁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예수님의 화계는 아주낮춤말인 '하라체'[23]와 '해라체'로 획일적이며 고정적이다. 반면에 『새한글』은 (가)의 '해요', (나)의 '그대들[24] + 하십시오 + 해요', (다)의 '해요 + 그대들 + 하십시오' 등 비격식체의 '해요체'("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하세요")와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말합니다", "채찍질할 겁니다")의 복합 화계 등 높임법의 다양한 화계를 사용하였다. 기존 전통적 번역체에서 벗어나 인격적 친밀감을 드러내 준다.[25]

(가) 마가복음 4:35
『개역개정』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새번역』 그 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23) 『개역개정』은 예스러운 '해라체'('하라체') 어미(-리라, -노라, -니라, -도다)와 예스러운 '하십시오체' 어미(-나이다, -옵소서, -오니까, -나이까)를 사용하였다.
24)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로 하게할 자리나 하오할 자리에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와 사용함으로써 구어(입말)체적 담화의 특성을 보여 준다.
25) 민현식은 『새한글』은 상위자로 권위적 화계와는 달리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존중하는 높임법을 사용해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번역했다고 하였다.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373.

『새한글』 바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건너편으로 갑시다.”[26]

(나) 마가복음 16:15-16

『새한글』 15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 어디든지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있다고 판결받을 것이다.”

(다) 요한복음 21:10, 12

『새한글』 10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12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리로 와서 아침들 먹어라.” …

예수님의 발화는 (가)에서는 ‘하오체’(“갑시다”)를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그리고 (나), (다)의 경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모두 ‘해라체’(“선포하여라”, “판결받을 것이다”, “가져오너라”, “먹어라”)를 사용하였다.

4.1.2. 예수님과 무리들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에서, 무리는 예수님께 아주높임말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아주낮춤말인 ‘해라체’로 일관적이다. 반면에 『새한글』은 ‘해요체’나 ‘하십시오체’, ‘해요체+하십시오체’ 등 복합 화계를 사용하였다.

마태복음 5:14

『개역개정』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새번역』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새한글』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자리한 도시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26) … “호수 건너편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출발시켰다.(눅 8:22)

마태복음 5:24

『개역개정』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새번역』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새한글』 그러면 거기 제단 앞에 그대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자매와 화해하세요. 그러고 와서, 그때 그대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마태복음 5:44

『개역개정』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새번역』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새한글』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1.3. 예수님과 병자들

복음서에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한다. 예수님과 병자들의 대화에서는『개역개정』과『새번역』은 모두 일관되게 '해라 ↔ 하십시오'의 화계를 보여 준다. 당시 사회에서 병자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다. 이에『새한글』은 친밀감을 드러내는 '해요체'를 주로 사용하였고 '하십시오체'를 일부 사용하였다.[27]

요한복음 5:6-7

『개역개정』 6 …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27) 예수님과 병자와의 대화 화계를『새한글』만 보이고자 한다.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 드리세요."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눅 17:14, 심한피부병 환자들);
"그대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나요?"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부니,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막 10:51-52)

『새번역』 6 …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7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새한글』 6 …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7 예수님께 아픈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던져 넣어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15:25, 28

『개역개정』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

『새번역』 25 그러나 그 여자는 나아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28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

『새한글』 25 그 여자가 와서 거듭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28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병자들의 대화에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획일적이며 고정적인 ‘해라체’를, 반면에 병자들은 예수님에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압적인 ‘해라체’보다는 『새한글』처럼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사랑과 친근감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일 듯싶다.[28]

<표 6> 예수님과 병자들의 화계(예수님↔병자들)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	하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 하십시오

28) 현대인들은 격식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두루높임 표현인 ‘해요체’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독자층을 고려하여 보다 친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수님도 ‘하오체’ 대신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	→ 해라	→ 해라	→ 해요
38년 동안 앓아 온 사람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 해요 + 하십시오
출혈병에 시달려 온 여자	→ 해라	→ 해라	→ 해요
시각장애인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 하십시오
손 못 쓰는 사람	→ 해라	→ 해라	→ 해요
가나안 여자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 하십시오[29] ⇄ 하십시오

4.1.4.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복음서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원로 등이 주를 이룬다. 유대아최고의회(공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대표이며 유대 가문의 일원으로 구성된 원로들로 구성되었다. 예수님과 이들 종교 지도자들 대화의 화계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해라 ⇄ 하십시오'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반면에 『새한글』에서 예수님은 주로 '하오체'를 사용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거나 일부 '하오체'를 사용하기도 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 간의 대화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따지거나, 예수님이 체포되어 공회에서 심문을 받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하므로 '하오체 ⇄ 하오체'를 사용하였다. 그간 『새한글』에서 제자들이나 무리들, 병자들 등 일반인들에게 사용하던 '해요체'가 보이지 않고 격식체의 '하오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9) …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마 15:28)

<표 7> 종교 지도자 유형과 화계(예수님↔지도자들)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바리새파 사람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해라[30]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해요[31] 해라 ⇄ 하오[32]	하오 ⇄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십시오[33]
율법학자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십시오
사두개파 사람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대제사장, 원로들	해라 ⇄ 해라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오[34]	하오 ⇄ 하오[35]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해라 ⇄ 해라	해라 ⇄ 하오[36]	하오 ⇄ 하오[37]

(가) 마태복음 22:42, 바리새파 사람들

『개역개정』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새번역』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새한글』 "당신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그분은 누구의 자손이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

30)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요 8:13)

31)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요 8:25)

32)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요 8:13)

33) …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8:25)

34)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마 21:23)

35) 23 …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소?" 24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보겠소.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을 하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당신들에게 알려 주겠소.(마 21:23-24)

36) …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마 21:23)

37)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는 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은 읽어 본 적도 없소? …(마 21:16)

(나) 누가복음 20:38-39, 율법학자들

『개역개정』 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39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새번역』 38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39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새한글』 38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 있으니 말이오!" 39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다) 마태복음 22:28-29, 사두개파 사람들

『개역개정』 28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새번역』 28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새한글』 28 그러면 부활 때에 그는 일곱 명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 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29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속아 헤매고 있는 거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오.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가), 율법학자들(나), 사두개파 사람들(다)의 대화에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해라 ⇄ 하십시오'인 반면에, 『새한글』에서는 예수님은 '하오체'를 종교 지도자들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4.1.5. 예수님과 대제사장 및 빌라도의 화계

(1) 예수님과 대제사장

유대아최고의회(공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심문하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해라체'가 당연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도 대제사장에게 동일한 화계인 '해라체'로 응수하는 것은 원천 본문의 기능에 의한 것이다. 이에 『개역개정』은 '해라 ⇄ 해라'의 화계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새번역』과 『새한글』은 유대아최고의회(공회) 의장인 제사장의 위치와 거짓 증언으로 예수를 몰고 가는 대제사장의 발화를 '하십시오체'보다는 '하오체'로 하였다. 이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하오체'를 사용하거나[38] 당시 상황과 청중을 고려하여 경어체인 '하십시오체'로 응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6:63-64

『개역개정』 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새번역』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6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새한글』 63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하고 말해 보시오. 바로

38) 조지윤은 당시 대제사장의 발화는 유대교의 경건한 완곡어법을 사용함으로써 거만과 자기의를 드러내고 긴장감을 전달하기에 좋은 '하오체' 사용이 좋다고 했다. 아울러 예수님도 공적인 법적 상황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래의 심판자로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는 발화가 되어야 하며, 대제사장과의 문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오체' 사용이 적절하다고 했다. 조지윤, "산헤드린에서 진행된 예수의 재판(막 14:61하, 62하)", 「신약연구」 7:4 (2008), 633-642.

당신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64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당신이 스스로 말했소. 그러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2) 예수님과 빌라도

빌라도는 당시 로마 황제의 권한을 부여받아 식민국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거짓 메시아'로 몰아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기에 굳이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데 고압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다.

(가) 마태복음 27:11 // 마가복음 15:2 // 누가복음 23:3

『개역개정』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새번역』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하고 말씀하셨다.

『새한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총독 앞에 세웠다. 그러자 총독이 예수님께 캐물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나) 요한복음 19:10-11

『개역개정』 10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새번역』 10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 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1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10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한다.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오? 나에게는 당신을 풀어 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11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거스를 권한이 총독에게는 전혀 없소. 위로부터 총독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말이오. 이 때문에 나를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오."
『새한글』	

위의 예문은 법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대화이다. (가)의 경우 공관복음서 모두 동일한 대화 장면으로 화계도 동일하다. 다만 『개역개정』은 '해라 ⇄ 해라'인 반면, 『새번역』, 『새한글』은 '하오 ⇄ 하오'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의 요한복음에서도 화계는 (가)와 동일하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피고인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등 기적을 베푸는 능력에 대해 이미 들은 바가 있기에 평범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반말이나 낮춤말인 하게체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법정인 점을 감안하여 독자들을 고려해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도 예수를 모욕하고 정죄하는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답답할 정도로 아무 대답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조소와 비아냥거리면서도 어느 정도의 격식있는 심문의 발화가 필요하므로 '하오체'의 화계를 사용했다. 예수님 역시 군중에 끌려가는 총독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당시 총독의 위상과 재판관의 예우를 고려해야 하므로 '하오체'가 좋을 것이다.

4.2. 예수님 외의 발화 유형과 화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발화 유형과 화계가 있다. 『개역개정』은 주로 '해라체'를, 『새번역』은 주로 '하오체'를, 그리고 『새한글』은 주로 '해요체'와 복합 화계를 사용했다. 이를 표로 보이면 <표 8>과 같다.

<표 8>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화계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천사 → 요셉	하라	해라	해요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천사 ⇄ 마리아	하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 하십시오 ⇄ 하십시오
천사 → 여자들	해라(하라)	해라, 하오[39]	해요
엘리사벳 → 마리아	해라	하십시오	해요
헤롯 → 점성가들	하라	하오	하오
세례자 요한 → 백성	하라	해라	하십시오
세례자 요한 ⇄ 제사장, 레위인들	해라 ⇄ 해라	하오 ⇄ 하오	하십시오 ⇄ 하십시오
세례자 요한 →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해라	해라	하십시오[40]
세례자 요한 ⇄ 제자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 하십시오 ⇄ 하십시오
세례자 요한 → 헤롯	해라	하십시오	하오
안드레 → 형 베드로	해라	하오	해
나다나엘 ⇄ 필립	해라 ⇄ 하라	하오 ⇄ 하오	해 ⇄ 해
베드로 ⇄ 제자들	해라 ⇄ 해라	하오 ⇄ 하오	하게 ⇄ 하게
베드로 ⇄ 여자종	해라 ⇄ 해라	해라; 하오[41] ⇄ 해요	해요 ⇄ 해요
베드로 ⇄ 곁의 사람들	해라 ⇄ 해라	하오 ⇄ 하오	하십시오 ⇄ 해요 + 하십시오[42]
토마스 ⇄ 제자들	해라 ⇄ 하라	하오 ⇄ 하오	하게 + 해 ⇄ 하게
제자들 → 시각장애인	해라	하오	해요
제자들 ⇄ 나귀 주인	해라 ⇄ 해라	하십시오 ⇄ 해요	하십시오 ⇄ 해요[43]
예수님의 어머니 → 시중꾼들	해라	해요	해요
잔치 책임자 → 신랑	해라	하오	하십시오 + 해요

39)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막 16:6)

40)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장면에서는 '하오체'(마 3:7, 눅 3:7)를 사용했다.

41)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눅 22:57)

42) 73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 통속인 것이 확실해요. 당신의 말투가 훤히 드러내 줍니다." 74 그때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마 26:73-74)

43) 누가복음에서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 "어린 나귀를 왜 푸는 겁니까?"(눅 19:33)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마르다 → 마리아	해라	해라	해
헤롯 ⇄ 헤로디아의 딸	하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해요 ⇄ 해라 + 하게
헤로디아 ⇄ 딸	하라 ⇄ 하십시오	해라 ⇄ 해요	해라 ⇄ 해요
생각 짧은 처녀 ⇄ 생각 깊은 처녀	해라 ⇄ 해라	하오 ⇄ 해라	해 ⇄ 해
신랑 ⇄ 처녀들	해라 ⇄ 하십시오	해라 ⇄ 하십시오	하십시오[44] ⇄ 해요
포도밭 주인 ⇄ 일꾼들	하라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해요 ⇄ 해요 + 하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 → 제자들	해라	하오, 해요, 하십시오[45]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 ⇄ 시각장애인	해라 ⇄ 해라	해라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 ⇄ 시각장애인 부모	해라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십시오
가룟 유다 → 마리아	해라	하게	해요
가룟 유다 → 무리	하라	하오	하십시오
가룟 유다 ⇄ 제사장, 원로들	해라 ⇄ 하라	하오 ⇄ 해요	하십시오 ⇄ 하오
대제사장 ⇄ 율법학자, 원로들	해라 ⇄ 해라	하오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빌라도 ⇄ 대제사장, 무리들	해라 ⇄ 하십시오	하오 ⇄ 하오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빌라도 ⇄ 유대아 사람들	해라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빌라도 ⇄ 무리	하라 ⇄ 하십시오	하오 ⇄ 하오	하오 ⇄ 하십시오
빌라도 ⇄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하라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하오 ⇄ 하십시오
빌라도의 아내 → 빌라도	하십시오	해요	해요 + 하십시오
사람들 → 바르디매오	해라	하오	해요
대제사장 → 무리	해라	하오	하오 + 하십시오[46]

44) 11 … ‘주님, 주님, 저희에게 열어 주세요!’ 12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알지 못합니다.’(마 25:11-12)

45) …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마 9:11)
…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눅 5:30)
…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막 2:16)

46) …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소.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보시오, 하나님 모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빌라도 ⇄ 무리	해라 ⇄ 하십시오	하오 ⇄ 하오	하오 ⇄ 하십시오
사람들 → 사람들	해라	하오	해요
마리아 → 베드로, 요한	해라	하십시오	하십시오
대제사장 → 경비병들	하라	해라	해라

(1) 세례자 요한 및 제자들과 관련된 화계

세례자 요한의 경우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제자들이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라체'를 사용하였다. 다만 『새번역』에서 제사장에게 '하오체'를, 헤롯왕에게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새한글』은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사용했는데 헤롯왕에게는 '하오체'를 사용했다. 이는 이복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로챈 행동을 '옳지 않다'고 꾸짖은 발화이기 때문이다.[47]

예수님 제자들과 관련된 대화로 우선 제자들끼리의 화계는 '해라체(『개역개정』) – 하오체(『새번역』) – 해체(『새한글』)'로 『새한글』은 격식체를 벗어나 친밀감을 주는 '해체'를 사용하였다. 다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래 (가)처럼 '하게체'를, 토마스와 제자들은 (나)처럼 '하게체 + 해체 + 하게체'를 사용했다.

(가) 요한복음 21:3 그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한다. "우리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

(나) 요한복음 20:25 그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그러자 토마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에서 못 박힌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자국에 넣어 보아야겠네.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걸세."

(2) 종교 지도자들 및 빌라도의 화계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의 발화는 주로 '해라체'(『개역개정』) – '하오체'(『새번역』) – '하오체'(『새한글』)로 『새한글』에서도 격식체인 '하오체'를 사용했다. 이는 앞에서도 기술했지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

독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이 들었소."(마 26:65)

47) 그런데 갈릴래아의 통치자(분봉 왕)인 헤롯을 두고는 그의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문제를 들추어 꾸짖었다. 헤롯이 저지른 나쁜 짓도 모두 들추어 꾸짖었다.(눅 3:19)

고 군중의 눈치를 봐야 하면서도 자신이 총독으로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해라체(『개역개정』) – 하오체(『새번역』)'를 사용한 반면, 『새한글』은 '해요체'를 사용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에게는 '하오체'를 시각장애인 부모에게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요한복음 9:34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은 말이오, 온통 죄 가운데 태어났소. 그런 주제에 당신이 말이오,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오?" 그러고는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요한복음 9:19
그러고는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사람이 당신들 아들 맞습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그가 볼 수 있습니까?"

(3) 기타

천사의 경우 요셉, 마리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동일하게 '하라체'(『개역개정』) – '해라체'(『새번역』) – '해요체'(『새한글』)를 사용하였다. 이외에 대부분 대화의 화계는 격식체의 '해라체'(『개역개정』)와 '하오체'(『새번역』)가 주를 이룬다. 반면에 『새한글』에서는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하오체'는 예사 높임으로 젊은 세대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요체'를 주된 화계로 하였다. 또한 대화는 구어(입말)체적 담화이므로 적절하게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섞어서 쓰는 복합 화계의 특징을 보여 준다.

마태복음 20:4, 7, 12
4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요.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품삯을 정당하게 쳐줄게요.'
7 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써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12 그들이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
마태복음 27:19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한테 사람을 보내어 말하게 했다. "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그는 의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 꿈에서 무척 고생했어요."

5. 결론

본고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담화론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새한글』을 기존 번역본인『개역개정』및『새번역』과 비교·대조하여 담화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새한글』은 다음 세대를 위해 발간하였으며 가급적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번역했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룬 사복음서를 꼼꼼히 분석하여 담화론적 주요 특성을 고찰했다.

첫째, 화자와 청자, 장면의 요소를 반영한 담화 단위에서의 소제목의 특성을 밝혔다.『새한글』은 기존 번역본인『개역개정』과『새번역』에 비해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져 가독성을 높이고, 문장 형식으로 나타나 서사적 담화를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소제목을 더 세분해 담화 장면의 이해와 담화 분석 능력을 높인다.

둘째, 호칭의 담화론적 특성에서『개역개정』은 전통적으로 고정된 호칭을 사용하여 담화 맥락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새번역』은 일부 담화 장면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권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새한글』은 인물의 호칭 유형에 따라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원문의 의도를 반영한 호칭을 사용하였다. 예수님이 사용한 다양한 호칭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지칭을 넘어 소외되고 고립된 존재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선포이며 하나님 안에 사랑의 공동체임을 선언한 것으로 담화 맥락에 적절한 호칭이라 할 수 있다.

셋째,『새한글』은 담화의 결속 장치를 통해 담화의 명료성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다음 세대에 익숙하도록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화 맥락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긴 문장이나 담화를 분절하여 지시어나 접속어 등 담화 표지를 적절히 사용하였다. 또한 담화의 정보 구조의 재배치로 새 정보와 강조 정보를 담화 전면에 두는 형식으로 어순 도치나 독립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과거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함으로써 담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표현 방식으로 중요한 사건을 현재화하여 청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담화 전략을 펼쳤다.

넷째, 높임법의 담화 전략으로 다양한 화계를 사용하였다.『개역개정』,『새번역』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고정적 틀에 따라 획일적인 화계를 설정하였다. 다만『개역개정』이 '하라체'나 예스러운 '해라체' 및 '하소서체'와 같은 전통적인 문체인 반면에『새번역』은 옛말투의 문체 형식은 아니지만 역시 획일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에『새한글』은 격식체의 틀에서 벗어나 친근감을 주는 비격식체를 두루 사용하는 복

합 화계를 사용하였다.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인 나이나 지위를 기본으로 하되, 대화의 장면과 상황, 화자의 심리적 태도 등 담화적 맥락을 고려한 구어체 화계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실제 언어 감각을 반영하였다.

<주제어>(Keywords)
담화론, 발화 유형, 호칭, 결속 장치, 담화 화계.
Discourse theory, Utterance types, Name title, Cohesive Devices, Scale of politeness.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4월 13일)

<참고문헌>(References)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성경원문연구」 51 (2022), 353-384.
박덕유,『문장론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2.
박덕유,『이해하기 쉬운 문법교육론』, 서울: 역락, 2017.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성경원문연구」 34 (2014), 83-109.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5.
성기철,『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서울: 글누림, 2007.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 224-251.
조지윤, "산헤드린에서 진행된 예수의 재판(막 14:61하, 62하)",「신약연구」 7:4 (2008), 619-648.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Theory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Focusing on the Four Gospels

Deok-yu Park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theory, focusing on the Four Gospels. It compares and contrasts the New Korean Translation (2024) with existing versions,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and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4), to elucidate key characteristics appearing in the discourse context. Since the New Korean Translation was published for the next generation and aims to be a translation faithful to the original text, this study carefully analyzed the Four Gospels, which deal with Jesus' ministry, to examine major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theory.

First, the study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subtitles in discourse units that reflect elements of the speaker, listener, and scene. Compared to the existing NKRV and RNKSV, NKT consists of specific explanations to increase readability and appears in sentence forms to facilitate a quick understanding of the narrative discourse. Furthermore, it subdivides subtitle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discourse scenes and discourse analysis abilities.

Second,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theory in name titles, NKRV was passive in adapting to changes in discourse context by using traditionally fixed name titles. While RNKSV accepted some discourse scenes, it still revealed traditional authority. In contrast, NKT used name titles reflecting the intention of the original text so that the character's faith status could b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name title. Additionally, various name titles used by Jesus can be cited. These go beyond general references; they are a proclamation of becoming a member of society from being a marginalized and isolated existence, and a declaration of a community of love within God, which are appropriate name titles for the discourse context.

Third, NKT improved the clarity of discourse through cohesive devices.

Accordingly, it used short sentences rather than long ones to be familiar to the next generation. It also properly utilized discourse markers, such as demonstratives and conjunctions, by segmenting long sentences or discourses to easily convey the meaning of the utterance context. Moreover, by rearranging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the discourse, it placed new information and emphasized information at the front of the discourse using word order inversion or independent words. It also employed a discourse strategy of describing past events in the present tense to maximize discourse effects, thereby making important events present and drawing the listener into the story.

Fourth, the setting of the scale of politeness as a discourse strategy of honorifics is appropriate. NKRV and RNKSV established a uniform scale of politeness based on a fixed framework according to age and social status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While the NKRV used traditional styles such as Hara-che, the archaic Haera-che, or Hasoseo-che, and the RNKSV did not use archaic styles, it still did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uniform framework. On the other hand, NKT used a complex scale of politeness that utilizes informal styles giving a sense of friendliness, breaking away from the framework of formal styles. While based on the social relationship of age and status between the speaker and listener, it reflected the actual linguistic sense used by young people through a spoken-style scale of politeness that considers the discourse context, such as the scene and situation of conversation and the speaker's psychological attitude.